

한중Zine

INChinaBrief

Vol.371 2019.05.27

중국의 넥스트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방안

작 성 | 한남대학교 중국경제통상학과
정상은 (peking@hnu.kr)

목 차

1. 시진핑 시대, 중국 국가비전의 변화
2. 중국의 넥스트 산업혁명, '중국제조 2025'
3. 중국의 전통산업 및 넥스트 산업의 발전 현황
4. 우리의 기회 요인과 대응 방안

-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비전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서 중국 넥스트산업혁명에 대한 비전도 새롭게 정립되고 있음
 - 2045년에 완료되는 ‘중국제조 2025’에는 중국의 넥스트 산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담겨 있는데, 3단계 과정을 거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산업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의 전통산업이 양적 성장의 후유증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공유경제, 신유통, 전자상거래 등 넥스트 산업은 거대 내수 시장, 정부의 강력한 지원 등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지속
- 우리 기업은 중국 전통산업의 위기를 시장 확대 기회로 삼는 동시에, 넥스트 산업의 성장에 편승할 수 있는 전략을 민관 협동하에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함

1. 시진핑 시대, 중국 국가 비전의 변화

1) 중국의 장기 국가 비전

■ 중국의 국가 비전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87년 제시한 ‘싼부저우(三步走: 세 발걸음)’라고 하는 3단계 발전론이 근간

- 덩샤오핑은 3단계 발전론의 실현과 관련하여 ‘두 개의 100년 목표(两个百年目标)’라는 개념을 제시
 - 첫 번째 100년은 공산당의 창립 100주년인 2021년으로 이때까지 ‘샤오캉(小康)’ 사회를 달성해야 함
 - 두 번째 100년은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으로 ‘다통(大同)’ 사회 진입을 달성하는 해로 설정했는데 덩샤오핑은 다통 사회 달성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

- 첫 단계인 ‘원마오’는 ‘따뜻하고 배부르다’라는 뜻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사회를 말함
 - 중국은 20세기 말까지 ‘원마오’를 달성할 계획이었는데, 1980년대 말에 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샤오캉’은 중국 고전 ‘예기(禮記)’에 나오는 표현으로 ‘먹고 입는데 걱정이 없는 기초 복지가 보장된 사회’를 의미
 - 2002년에 중국의 인당 GDP가 구매력 기준으로 3,000달러를 넘어서자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중국이 샤오캉 시대에 진입했다고 선포
 - 샤오캉사회는 당초 중진국 진입으로 여겨져 왔지만, 중국이 중진국 반열에 들어선 후에는 ‘삶의 질이 보장된 높은 수준의 중진국’이라는 의미의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가 등장
- ‘다통’ 역시 ‘예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노인, 홀아비, 과부, 고아, 환자들에게 살길을 마련해주는 사회를 말하는데, 복지가 완벽한 선진국을 의미
 - 공산당은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중국의 경제는 물론 산업, 외교, 국방 등 핵심 영역의 장기 비전은 3단계 발전론과 긴밀하게 연결

- 시진핑(習近平)이 2012년 통치 어젠다로 제시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의 실현’도 3단계 발전론의 연장선
 - 시진핑이 현대판 실크로드 재구축을 목표로 2013년 시작한 일대일로(一帶一路)는 2049년에 완료
 - 대만을 통합하여 통일을 완성하는 목표 년도도 2049년이며, 중국판 4~5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중국제조 2025’도 이즈음에 완료

2) 시진핑 시대, 국가 비전의 변화

■ 시진핑은 자신의 통치 철학을 반영하여 새로운 3단계 발전론을 천명하고 선진 초강대국 건설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¹⁾

- 자신의 2번째 임기가 시작된 2017년 10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2018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비전을 새롭게 천명
- 시진핑은 기존의 3단계 발전론 중 ‘샤오캉’에서 ‘다툽’에 도달하는 단계를 새롭게 3단계로 구분
 - 1단계(~2020):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 달성
 - 2단계(2020~2035년): ‘샤오캉’ 사회의 기초 위에서 경제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인민이 평등한 사회, 선진국형 제도가 완비된 사회, 소프트파워가 왕성한 사회인 ‘기본 현대국가’에 도달
 - 3단계(2035~2049년): ‘기본 현대국가’의 기초 위에서 다시 15년의 노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기본적인 현대 선진국에 도달하며, 이를 바탕으로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대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시진핑의 구상

1) “习近平：运用信息革命成果支持实现“两个一百年”奋斗目标”，中国社会科学网，2019-1-26.

■ 중국의 국가 비전은 종전에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었으나,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가로 부상한다는 목표로 변화

- 이는 중국이 초고속 성장의 결과 기존 목표를 10년 이상 앞당겨서 실현해 온 데다가 현실적으로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이 목표로 삼을 만한 국가도 없기 때문
- 또한, 일대일로 사업, 산업고도화, 대만 통일, 영유권 분쟁 등 중국이 향후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에서 미국은 넘어서야 할 가장 큰 걸림돌
- 시진핑의 집권 아젠다인 ‘중국몽의 실현’은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었던 과거 왕조시대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패권 국가를 의미
 - 패권 국가였던 한(漢), 당(唐)시기의 실크로드를 염두에 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2. 중국의 넥스트 산업혁명, ‘중국제조 2025’

1) 중국의 넥스트 산업혁명 비전

■ 중국 정부는 4차와 5차로 이어지는 넥스트 산업혁명에 대한 명시적인 전략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2015년에 시작해서 2045년에 끝나는 ‘중국제조 2025’에 그 내용이 담겨 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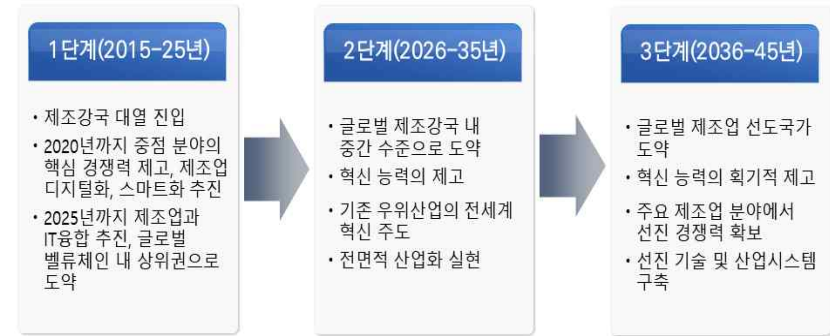
- 중국 정부는 향후 30년에 걸친 3단계 넥스트 산업혁명 계획을 수립했는데, ‘중국제조 2025’는 그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최종 목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제조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것임
- 목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9대 과제로 제조업 혁신력 제고, 제조업 기초역량 강화, 제조업 국제화 수준 제고, IT기술과 제조업 융합, 서비스형 제조업 및 생산형 서비스업 육성, 친환경 제조업 육성, 품질 향상 및 브랜드 제고, 구조조정 확대, 10대 전략산업 육성 등을 제시
- 10대 전략 산업은 차세대 IT 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 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 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 및 의료기기
- 9대 과제 10대 전략산업을 위한 5대 핵심 중점 프로젝트로 국가 제조업 혁신 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업 육성, 공업 기초역량 강화, 친환경 제조업 육성, 첨단 장비의 혁신 등을 추진

2) ‘중국제조 2025’는 독일의 ‘Industry 4.0’을 벤치마킹하여 구상되었는데, 세계 최고의 제조국가 독일이 ‘Industry 4.0’에서 주로 기술 혁신을 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기 때문에 ‘중국제조 2025’로 명명함. (이현태 외(2017), pp.50-52.)

■ 중국 정부는 제조 강대국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단계 계획을 수립

- 국가별로 등급을 1등급(미국), 2등급(독일, 일본, 스위스 등), 3등급(영국, 프랑스, 한국 등)으로 분류
 - 1단계(2016~2025년)에서는 한국을 넘어서고, 2단계(2026~2035년)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넘어 강대국의 상위권으로 부상하며, 3단계(2036~2045년)에서는 미국과 함께 최선두에 서겠다는 구상
- 1단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제조대국에서 벗어나 제조 강국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
 - 2020년까지 자동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제조업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달성하여 주요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
 - 글로벌기업과 산업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하여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상위권으로 도약
 - 이를 위해 핵심 기술 및 소재·부품의 자급률을 2020년 40%, 2025년 70%로 제고할 계획
- 2단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글로벌 스마트 제조 시장에서 중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 혁신 능력을 제고하여 기존 경쟁우위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
- 3단계는 2036년부터 204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선진 기술 및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선진 경쟁력을 확보

그림 1 | ‘중국 넥스트산업혁명’의 단계별 목표



출처: “中国版“工业4.0” 蓝图出炉力争2045年建成工业强国”, 中国政府网, 2015-03-14

■ 1단계 목표인 제조 강국 대열 진입을 위해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 등 선진 제조국가와 협력을 강화

- 현재 중국은 독일과 가장 활발하게 제조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³⁾
 - 중국은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축적을 위해 전통적인 제조 강대국인 독일을 혁신 모델로 삼아 데이터 보안 · 지식재산권 보호 · R&D 공동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2014년 10월 리커창 총리의 독일 방문 시 「중 · 독 협력 행동강요」를 공동 발표한 데 이어 2015년 10월 ‘중국제조 2025’와 독일 ‘Industry4.0’ 전략의 연계 추진에 합의하면서 협력을 본격화
 - 2015년 12월 중국 랴오닝성(辽宁省) 선양(沈阳)에 50대 50의 자금 출자로 설립된 ‘중 · 독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에 BMW, 지멘스 등 독일 대표 제조기업이 입주하여 R&D 센터, 스마트 철도 연구센터 등을 운영
 - 광둥성(广东省) 포산(佛山)에 위치한 ‘중 · 독 공업 서비스 단지’에도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기업인 Remondis, 산업용 로봇 기업 Kuka 등 첨단 독일기업들이 입주
- 중동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스라엘과의 첨단산업 교류도 활발⁴⁾

3) 김영선(2017), p.2-3.

- 이스라엘은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의료기기 등 ‘중국제조 2025’의 주요 분야의 첨단기술 강국
- 미국기업 인수가 어려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첨단 기업 인수와 기술 제휴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6년에만 중국의 이스라엘 투자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165억 달러를 기록
- 2015년부터 「중국·이스라엘 투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에는 시진핑의 최측근인 왕치산(王岐山) 부주석이 알리바바 회장 마윈(马云)과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

2) 중국의 넥스트 산업혁명 전망

■ 중국의 넥스트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중국제조 2025’는 성공 가능성이 높으나 동시에 한계도 뚜렷

- 중국의 체제적인 특성을 살린 일사불란한 정부 주도형 산업혁명은 신속하고 대규모로 진행이 가능하며, 거대 시장은 테스트마켓으로서의 역할과 거대기업 등장을 위한 토대를 제공
 - 독일, 이스라엘 등과의 협력에서 보듯이 중국의 거대 시장과 자본은 선진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장벽을 낮춰주고 있음
- 이에 따라 1단계의 성공 가능성은 크지만, 최종 목표인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 정부의 목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뚜렷함
 - 반도체, 통신, 군사 등 주요 분야에서 미국의 비협조와 압력은 외부수혈 없이 자체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넥스트 산업혁명에 큰 장애 요인

4) ““十三五”开局年：中国制造向以色列学什么？”，家核优居网，2015-02-24.

- 정부 주도형 혁신도 ‘중국제조 2025’ 2단계부터는 점차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민간주도의 혁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가 3단계 진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
 - 이는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이 동반되어야 하며, 현재 상황을 볼 때 향후 10년 내 중국에 주목할 만한 정치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
- 하지만, 1단계의 성공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에 지대한 위협이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

3. 중국의 전통산업 및 넥스트 산업의 발전 현황

1) 전통산업의 현황과 전망

■ 중국의 전통산업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의 과정에 있으나, 그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 2010년 한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에 올라선 중국의 조선산업은 인건비 급등, 고부가가치 기술 미비 등으로 최근 성장세에 제동이 걸려 있음⁵⁾
 - 초대형유조선(VLCC), 액화천연가스(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은 기술은 물론 임금 상승, 물류비 증가 등으로 원가 면에서도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018년 수주 실적이 전무한 실정
- 1996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선 이래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해온 철강 산업도 공급과잉,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산적⁶⁾
 - 공급과잉에 따른 덤핑 수출과 함께 국내 판매가 역차별 현상이 만연하여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 중국 정부는 철강산업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나 중국 조강생산 중 오염이 심한 고로의 비중이 94%(미국 33%)에 달하여 난망
- 자동차는 중국 정부가 2011년부터 ‘기술 뛰어넘기 전략’의 일환으로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푸쉬(Push)’ 전략의 한계 노정
 - 일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보다 지방정부와 대중교통 신차 수요에 전기차를 인위적으로 공급해왔으나 그 결과 민간수요는 미미한 상황

5) 석종훈 외(2018), pp.8-10.

6) 안병국(2017), pp.4-7.

- 중국 로컬브랜드들이 전기차에 집중하면서 민간 수요에 대한 글로벌브랜드의 장악력은 오히려 커지고 있음

- 가전, 휴대폰 등 내구소비재의 경우에도 중국 국내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압도적이거나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큰 진전이 없음
 - 중국 시장을 장악한 지 십수 년이 지난 하이얼(Haier), 거리(GREE), 메이디(Midea), 하이센스(Hisense) 등 전자 제조업체의 글로벌시장 영향력은 미진
 - 화웨이(Huawei)를 제외한 오포(OPPO), 비보(VIVO), 샤오미(Xiaomi) 등 중국 휴대폰 브랜드들은 최근 수년간 부침이 있었거나 신생브랜드이기 때문에 글로벌경쟁력 여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함

■ 조선, 철강, 자동차, 가전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은 일정 성과를 달성해왔으나 점차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 조선, 철강 등의 주요 기업은 대부분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위한 대규모 합병 등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
 - 중국 최대 철강기업인 바오강(宝钢)은 2016년 업계 5위의 우한(武汉)철강을 합병하여 6,000만 톤 규모의 세계 2위 기업으로 도약
 - 수백개에 달했던 국영조선소를 2000년대 이후 남쪽의 중국선박공업(CSSC)과 북쪽의 중국선박중공업(CSIC)으로 재편했으며 향후 두 그룹도 통합할 계획
- 구조조정 등 일부 성과 달성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발전은 여전히 난망
 -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숫자만 줄인 것일 뿐 지역의 핵심 기반인 국영 철강기업의 생산설비 감축에는 실패했으며, 재정적인 문제로 설비고도화도 난항
 - 중국 조선소는 두 그룹으로 재편이 되긴 했으나 실제로는 드넓은 해안가를 따라서 설립된 경쟁력 없는 소규모 조선소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며, 비상장사인 두 그룹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시너지효과도 의문시됨

- 자동차 산업은 관용 신에너지 자동차를 하는 로컬브랜드에만 지원이 집중되면서 자동차 고유의 경쟁력을 가진 로컬브랜드는 오히려 퇴보
- 볼보를 인수한 지리(吉利)자동차 등이 중국에서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성장하고는 있으나 자체 글로벌 브랜드와는 거리가 멀
- 넥스트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전통산업이 중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중국 정부가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이전만큼 하지 못하게 하는 역작용도 발생
- 조선산업의 경우 중국 GDP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정책에서 차 순위로 밀리는 양상
- 지원 효과가 큰 신산업에 비해 철강, 조선, 시멘트 등 전통산업은 십수년간 거대 자본과 지원의 투입에도 성과가 없는데 따른 피로감이 큼

2) 넥스트 산업 분야의 현황과 전망

- 최근 중국 산업의 발전은 전통산업이 아닌 넥스트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진핑이 2012년 이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인터넷플러스(互联网+), 스마트제조 등은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인공지능, 공유경제, 신유통 등 넥스트 산업을 견인

■ 중국 넥스트 산업은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 등 시장가치 기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인터넷 대기업이 견인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2018년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11월 11일)에 2,135억 위안(34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중국 소비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7)
 - 한국 인터넷업체의 지원을 받았던 텐센트는 2017년 매출액 2,378억 위안으로 중국 최대 SNS 및 온라인게임 업체로 성장
-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공유경제, 인공지능, 핀테크, 드론, 로봇, 빅데이터 등의 큰 손으로 중국의 넥스트 산업 분야를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킨 1등 공신
 -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은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2013년 각각 투자한 디디다처(滴滴打车), 콰이디다처(快的打车)가 2015년 합병한 기업
 - 세계 1위 전기 스쿠터업체 나인봇은 샤오미가 투자한 기업이며, 2014년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세그웨이를 인수

■ 중국 넥스트 산업의 고도성장이 가능한 것은 거대 내수 시장의 존재에 기인

- 중국이 엔진차를 건너편 전기차, 전통 유통을 건너편 온라인 유통 등 넥스트 산업이 가능한 근본 원인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 내수 시장
- 세계의 공장이 유발하는 풍부한 수요에 기반한 로봇 시장, 급팽창한 온라인 유통에 힘입어 성장한 핀테크 시장, 표준어와 다양한 방언이 혼재하는 특유의 환경에 따른 음성인식(인공지능) 시장 등도 대표적

7) “阿里巴巴光棍节成交额2135亿元，美国网友热议”，三泰虎，2018-11-13.

■ **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하면 복잡한 입법 과정이나 인권, 이해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신속한 지원시스템도 넥스트 산업 발전에 일조**

- 빅데이터가 필수인 인공지능의 경우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산업을 선도
- 차량공유 서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별다른 법률정비 없이도 곧바로 서비스를 용인한 이후 부작용은 추후에 개선하는 양상
- 2017년에 시진핑이 제기하여 베이징 인근에 건설 중인 송안신구(雄安新区)는 시작부터 스마트시티로 기획 중인데 정부가 일체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시켜 부작용을 최소화

■ **거대시장도 있고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성과가 미진한 반도체 산업이 넥스트 산업 성장의 관건이 될 가능성⁸⁾**

- 중국은 2017년 반도체 수입에만 2,601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반도체의 60%를 소비하지만, 자급률은 14%에 불과하며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
- 로봇, 인공지능 등 넥스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며 2025년까지 200조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
- 그러나, 반도체는 여타 산업과는 달리 원천 기술 및 장비를 가진 미국 등 선진국이 지원에 난색을 보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난망

8) 김수진(2019), pp. 2-4.

4. 우리의 기회 요인과 대응 방안

■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가 정체를 보이는 것은 기회 요인

-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우리를 추월하는 등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조선, 철강, 가전 등 중국 전통산업에 대해 새롭게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언론 등에 의해서 과대평가된 중국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중국 전통산업의 질적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호기
 -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전된 우리 조선산업, 바닥을 친 철강 산업 등은 신규투자과 정책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때임
- 한편으로는 고도화가 지지부진한 중국 전통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도 있음

■ 중국 넥스트 산업의 부상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 요인을 제공

- 차세대 정보기술,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자동차, 고효율 전력설비 등 중국이 육성하는 넥스트 산업에 걸맞은 고품질, 고효율 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
 - 소재, 부품, 장비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 및 중견업체의 기술개발과 중국 시장 개척을 선별적으로 지원

- 중국의 넥스트 산업 국제화와 자본시장 개방 확대를 활용하여 중국 내 IT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넥스트 산업에서 유망한 중국기업에 대한 합작 투자나 M&A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청두(成都)의 중한혁신창업보육파크(中韩创新创业孵化园), 상하이(上海)의 중한혁신창업파크(中韩创新创业园) 등을 활용
- 넥스트 산업 분야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기업의 이점이 크지 않은 연해 지역 대도시보다는 내륙도시가 바람직
 -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시안(西安), 현대차 공장이 있는 충칭(重庆)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은 덜 치열하면서도 각 지역의 거점 도시
 -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동북의 창춘(长春)은 한·중의 중소창업기업들이 ICT를 기반으로 하여 협력하는 신개념 경제협력 플랫폼인 중한국제합작시범구 설립을 추진 중

■ 업종, 기술 수준, 제품별로 중국 넥스트 산업의 부상에 대응하여 선도할지 편승을 할지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

- 선도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와 같이 중국이 단기간 내 따라오기 어려운 분야로 핵심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산업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
 - 중국 기업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선도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후발 중국기업을 저지
- 편승 산업은 중국이 주도하고 기술적으로도 앞서 나가는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유통 등 신성장산업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중국 신산업 성장의 열매를 공유할 수 있는 산업
 - 중국에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중국이 필요로 하는 일부 부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 공동의 중국 넥스트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

- 중국이 주도하고 앞서나가는 넥스트 산업에 대해서는 국내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넥스트 산업 기업들은 선진 시장의 테스트마켓으로써 한국 시장에 대해 관심이 높음

■ 중국 넥스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성장동력 산업 선정이 중요

- 단순히 현재의 한중 산업 경쟁력만 가지고 우리의 미래 산업을 정하기보다는 중국 넥스트 산업의 발전상과 전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판단
 - 이를 위해 ‘중국 넥스트 산업 연구회’ 등과 같은 민관 공동의 기구를 상설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산당과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
 - 중국 넥스트 산업 시장에 진출하여 중국 기업과 합작, 중국 지방 신산업개발구 입주 등을 추진하는데 정부의 지원이나 보증이 필수
- 문제는 광대한 중국의 지역과 업종, 제품 등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일일이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민관의 정보공유와 공동 정책설계 등이 필요

참고자료

- 김수진(2019),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의 현황 및 영향력”, 『Issue&Insight』,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김영선(2017), “중국, 독일과 제조업 혁신 강화 방안 논의”,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창도(2017), “중국의 인더스트리 4.0과 스마트팩토리 추진 전략”, 포스코경영연구원.
- 서동혁 외(2017), 『한중 신산업 발전전략과 산업협력 방안 - 협력증진과 제3국 공동진출』, 산업연구원.
- _____ (2018), “한중일 조선산업 경쟁력 비교”, 『이슈분석』,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 안병국(2017), “뉴노멀 시대 중국 철강산업의 특징”, 『산업분석』, 산업연구원.
- 이현태 외(2017),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상은(2012), “중국 산업의 고도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경영컨설팅연구』,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_____, “중국경제의 전환기적 특징과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비교경제연구』, 한국비교경제학회.
- 工业和信息化部(2016), 『中国製造2025』, 国家工信出版社.
- 国家制造强国建设战略咨询委员会(2017), 『中国制造2025蓝皮书』, 电子工业出版社.
- 赵昌文 外(2016), 『新时期中国产业政策研究』, 中国发展出版社.
- “习近平：运用信息革命成果支持实现“两个一百年”奋斗目标”, 中国社会科学网, 2019-1-26, http://www.cs.cn/jjx/jjx_xjpxsdzgtsshzyjjsx/201901/t20190126_4817930.html(검색일: 2019-04-02).
- ““十三五”开局年：中国制造向以色列学什么?”, 家核优居网, 2015-02-24, <https://www.jiaheu.com/topic/49162.html>(검색일: 2019-04-09).
- “阿里巴巴光棍节成交额2135亿元，美国网友热议”, 三泰虎, 2018-11-13, <http://www.santaihu.com/46490.html>(검색일: 2019-04-15).
- “中国版“工业4.0”蓝图出炉力争2045年建成工业强国”, 中国政府网, 2015-03-14, http://www.gov.cn/zhengce/2015-03/14/content_2833744.htm(검색일: 2019-04-15).
- “中国製造2025” 홈페이지, <http://www.gov.cn/zhuanti/2016/MadeinChina2025-plan/>